

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

尹承重/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ung

우리는 매우 불행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는 사회의 불신으로부터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개방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앞으로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인식과 규범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현재 여러가지 현실적인 과제들 즉 법과 제도의 개선,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사무소 제도, 감리제도, 설계심의 제도, 건축사 시험운영 제도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실현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어느 분야 보다도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제 1995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결되는 현실적인 과제들과 함께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명제를 생각해 본다.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바탕이 되는 '하이테크 문화' 지향과 지구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제에 근거한 '저 엔트로피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두가지 대립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가지 신기술들, 즉 5세대지능 컴퓨터, TV전화, 고선명 TV, 광대역 종합통신망, 생명공학, 신소재, 대체에너지, 해양 목장 등 고도의 '하이테크'는 우리의 삶과 사고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며, 물론 건축과 도시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용된 자원과 에너지는 무가치한 폐기물이 되며, 비가역적이라는 열역학의 엔트로피 법칙에 주목하여, 지구자원의 고갈을 막고 인류문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속도와 자원의 소비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태도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즉 미래사회는 저 엔트로피, 저 에너지, 그리고 저 소비, 자원재활용 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발, 대량생산, 대량소비 등으로 표현되는 20세기 산업사회에 대한 반성으로 자원 보존과 지구 환경 회복이라는 새로운 핫 이슈가 등장하고, 이것이 후손에게 인류문명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세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기와 물의 오염, 오존층 구멍,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폐기물, 자원고갈 등 너무나 심각한 지구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와 건축이 이의 공범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건축가 연맹은 1993년 5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제 18회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호 의존성의 선언(시카고 선언)'을 채택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

동선언은 '공동인식'과 '공동선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 상세하게 시행원리와 실천과제들을 첨부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그 요지를 소개해 본다.

먼저 '공동인식'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자연과 문화를 회복, 보존하고 또한 그 질을 높인다. 다양하고 건강한 환경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오늘의 사회는 심각한 정도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우리 인간은 생태학적으로 전체 자연 환경과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전체인류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모든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형평 및 균형을 요한다.'라고 자연환경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이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전제하고

UIA의 시카고 선언은 우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인식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주어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은 사회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건축계의 여러 단체, 대학, 개인들이 우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어 '건조물과 건축환경은 삶의 질에 대하여 인간이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 완벽한 건조물과 재료, 생태학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토지의 이용 및 미적인 감각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를 통합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설계는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간의 역기능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정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서 건축의 역할이 중요함과 따라서 건축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건축가들은 각기 세계건축계의 일원으로서 또는 전문기구를 통하여 실천하여야 할 5개 항의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첫째 :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우리의 실무와 직무상책임의 핵심에 둔다.

둘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관행, 절차, 작품, 교육과정 및 기준 등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셋째 : 동료 건축가, 건축산업계, 의뢰인, 학생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결정적인 중요성과 실질적 기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가 통상적인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체내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및 관례 등을 수립한다.

다섯째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설계의 표준에 도달하기까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건축환경 요소들을 모든 설계, 작품활동, 건축물에 이용 및 재사용 등에 도입시킨다.

이상 5개항의 공동선언과 함께 건축인은 지구를 위하여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설계개념 및 기술 혁신 등을 촉진시켜야 할 의무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예견하고 지구와 지구인들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문화유산 및 생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들은 예술, 문화, 자연 및 사회과학 그리고 기술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 '시행원리'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무해 무독한 저공해의 새로운 자재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부품 교체를 가능케 하는 조립식 공법이 추천되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에너지 등이 권장되며, 유행을 따르지 않는 생명이 긴 디자인 등을 실천과제로 예시하였다.

UIA의 시카고 선언은 우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어느 나라보다도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동인식과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30년간 경제성장과 산업화 일변도로 추구해온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아직은 그 인식과 대응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문명'이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현안문제들과 함께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과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을 이와같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건축계의 여러 단체, 대학, 개인들이 우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힘을 합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